

수필이 있는 풍경사진



권영주
푸른소아과.내과의원장
순천향의대 명예교수

#1 수련과 가시연

수련의 잎은 수면에 떠 있고 꽃송이도 수면에서 핀다.

전통적인 연꽃보다 그 크기가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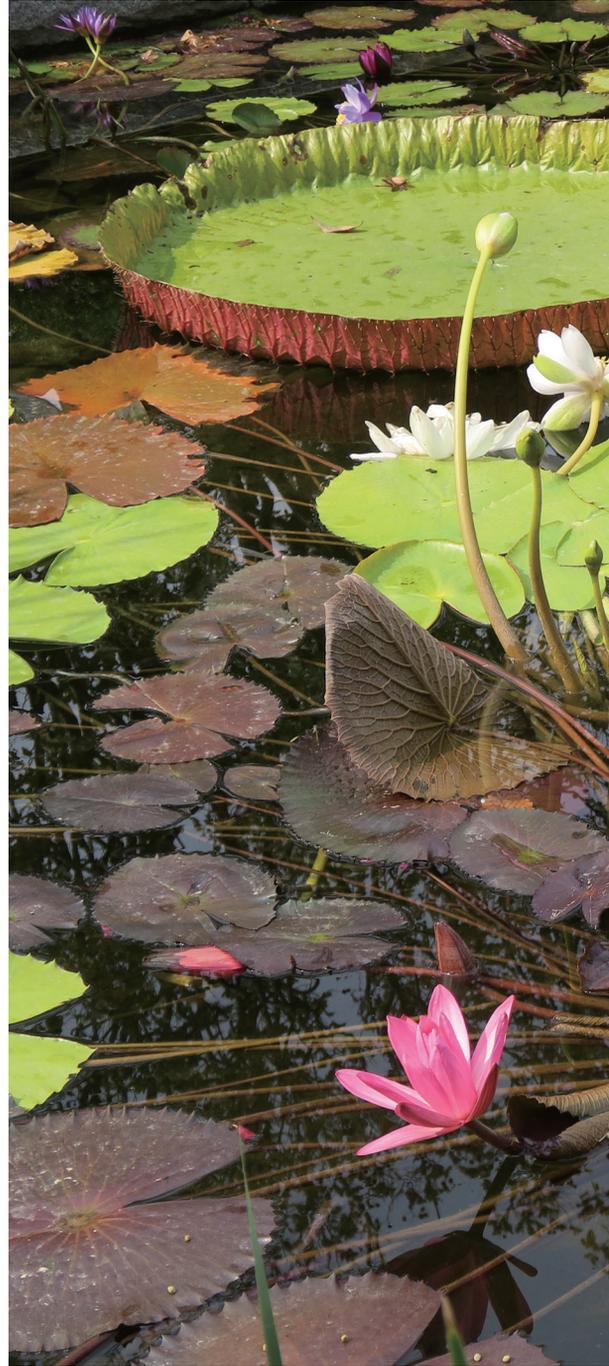
연꽃은 기품 있고 우아하며 아름답다.

흙탕물과 깨끗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꽃은 은은한 향기와 우아한 자태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준다.

가시연은 잎이 넓고 둥그런 모양으로 크게 자라며 가시도 있다.

자주빛갈의 꽃송이는 뾰족한 모양이면서 밑으로는 가시가 달려 있다.

분홍빛과 흰빛의 수련 그리고 커다란 가시연의 잎이 어우러진 이 풍경은 조화로운 진리 속에서 우리를 반겨준다.









#2 노르웨이 비젤란(vigelan) 조각공원

더 넓은 노르웨이의 조각공원은 한손 비젤란이 평생에 걸쳐 이룩한 공원으로, 우리 인생을 표현한 수많은 청동 조각상과 화강암 조각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수를 중앙에 두고 공원 입구부터 남녀 인간의 삶의 모습을 나체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고뇌에 찬 인간의 모습으로부터 울음을 터트리는 아기 상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습을 분수와 함께 조화롭게 표현하고 있다.